논어 8편 태백 3장 · 원문·풀이

曾子有疾，召門弟子曰：「啟予足！啟予手！詩云：『戰戰兢兢，如臨深淵，如履薄冰。』而今而後，吾知免夫！小子！」

독음 · 증자유질 소문제자왈 계여족 계여수 시운 전전긍긍 여림심연 여리박빙 이금이후 오지면부 소자

쉬운 풀이(요약) · 병든 증자는 손발을 보여 주며 평생 깊은 못가나 얇은 얼음 위처럼 조심해 몸을 온전히 지켜 왔다고 말했다.

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

글자 뜻과 음(대표 훈음 ·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

曾 일찍 증 증 / 子 아들 자 / 有 있을 유 / 疾 병 질 질

召 부를 소 소 / 門 문 문 문 / 弟 아우 제 / 曰 가로 왈

啟 열 계 / 予 자기 여 여 / 足 발 족 족 / 手 손 수 수

詩 귀글 시 시 / 云 이를 운 운 / 戰 싸움 전 전 / 兢 삼갈 긍 긍

如 같을 여 여 / 臨 임할 림 림 / 深 깊을 심 심 / 淵 못 연 연

履 신 리 리 / 薄 숲 박 박 / 冰 氷의 本字 빙 / 而 말이을 이

今 이제 금 금 / 後 뒤 후 후 / 吾 자기 오 오 / 知 알 지

免 면할 면 면 / 夫 지아비 부 부 / 小 작을 소 소

저본: 위키문헌 論語 ·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